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2호 [주체제23194호] 주체99(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과 드림없는 신념의 과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내무군, 내각, 철도성, 문화성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내무군, 내각, 철도성, 문화성대표회들이 27일에 진행되었다.

대표회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신뢰와 호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충정의 열의로 똘똘뭉쳐있었다.

대표회자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대표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성공으로 맞이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인민내무군과 내각, 성, 중앙기관의 각급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내무군대표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삼동지가 하였다.

조선내각대표회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으로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내무군대표회 문제를 토의하고 하면서 대표회에서는 조선인민내무군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보안원, 군인들의 기습마대에 새겨진 철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려는 인민내무군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보안원, 군인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주상성, 한천호, 최창봉, 최영철, 김호길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 것은 그이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견단계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시대적요구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로 인도하시면서 김일성민족사를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회색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총대철학으로 선군혁명의 원리를 밝히시고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당과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주신 위대한 선군령도자이시며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선군혁명 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뿐만아니라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무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게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결렬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는데서 인민보안기관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인민보안원들과 인민내무군인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사회의 안정,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었으며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을 수많은 일떠세우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비범한 통찰력과 뛰어난 지력, 정력적인 활동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드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최대의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길에 강대국진상대치의 승리를,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있다는것이 전체 조선인민내무군의 당원들과 인민보안원들, 군인들의 가슴마대에 새겨진 철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려는 인민내무군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보안원, 군인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주상성, 한천호, 최창봉, 최영철, 김호길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 것은 그이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견단계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시대적요구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로 인도하시면서 김일성민족사를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회색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총대철학으로 선군혁명의 원리를 밝히시고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셨다.

그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회색의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진실적인 체제로 정식화하시고 끊임없이 발전봉부화시키시였으며 주체의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하여 당과 무력, 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자주, 길로 끝까지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변 불류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당과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쳐신것은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로 일찌기 어느 당에서도 이룩할수 없었던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비범한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내각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며 일관된 심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투사기 펴내어 지적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업무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오늘도 혁명대고조에서 영예로운 승리를 거두며 대항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을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내각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내각사무국 당조직대표인 김학희내각부총리, 금속공업성 당조직대표인 김홍수공업성 당부서, 내각청년동맹 당조직대표인 서철국 내각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국가과학원 당조직대표인 손경남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원장, 내각청년 당조직대표인 김은철 내각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동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공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초강대국발전 단계에 임하는것을 위하여 사업기공과 일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슬금도 같이하는 장군님의 황원 선군

혁명동지가 되어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공은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로동당 철도성대표회에서는 청진 철도국 당조직대표인 철도성 정치국장 한창남동지가 추대사를 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로 될 조선로동당대표회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강조한 다음 본 대표회에서는 철도성안의 전체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추대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

고 지적하였다. 그는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어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어머니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하여 당과 무력, 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지고 우리 혁명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 길로 끝까지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불멸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자리하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전민무장화, 전국요충지에 실현된 금강철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혁명적리론으로 선군시대 군내단결의 세 력사를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셨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기 위해 용맹한 강성대국으로 발전시키고 초인간적인 의지와 무한한 정력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총력무진화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인 장성에 의해서 김일성민족의 강한 정신력이 단결없이 폭발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적인 사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언제나 철도를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혈관으로 증시하시고 나라의 철도 운수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도수송전사들을 경제강국건설의 최후병, 개척자로 내세워 정식화하시고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새로운 사상과 원리들로 끊임없이 발전봉부화하시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진보적인류의 사상리론적재부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시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전당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수십년간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위대한 자주적신념과 특출한 조직적수완, 비범한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틀어쥐시고 주체의 선군정치를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선군시대 문화예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가극,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미술부문에서 시대의 명작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대고시대의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들이 마련되였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이고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도 꽃피는것이 우리 혁명의 역사적총화이며 철의 진리라고 하면서 문화예술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문화성 기관당조직대표인 안동춘문화성, 문화성 당위원회 기관당조직대표인 조진태 문화성 당위원회 1비서, 민주대장작사 당조직대표인 주수운 민주대장작사 사장, 김원균평창 평양음악대학 당조직대표인 리일남 김원균평창 평양음악대학 학장 겸 주체음악연구소 소장, 문화성청년동맹 당조직대표인 리철성 문화성청년동맹위원회 1비서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적인 문화예술발전의 근본원동력이라고 지적하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동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혁신적인 인문과 1970년대의 창조정신, 투쟁기풍으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경위로 《산울림》의 창조적단결 자기 부분들에서 강성대국산업을 높이 올려갈것을 표명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더없는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밑에 더욱 위대해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배일을 확신하며 열광적인 박수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퍼지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회에게 보낸 대표자들을 선거하였다.

천출원인에 대한 열화와 같은 호모성이 끊어넘치는 속에 진행된 대표회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적같은 신념과 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파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함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 바 나
구 바 공 산 당 중앙 위원 회 제 2 비 서
구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구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울 까스프로 루쓰 동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구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구바공산당과 구바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외교관계설정후 지난 50년간 우리 두 나라는 반제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괴파압해 침입을 파습히 짓부셔서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 더욱 혁명적열정에 기초한 형제적구바인민과의 친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전위물을 수호하기 위한 구바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중앙 위원 회 서 서
조 선 민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방 위원 회 위 원 장
김 정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구 바 공 산 당 중앙 위원 회 제 2 비 서
구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구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울 까스프로 루쓰
주체99(2010)년 8월 26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 선 민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방 위원 회 위 원 장
김 정 일 동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동 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구바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당신들께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를 구바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당신들께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를 우리 두 당과 인민, 국가들사이의 우애와 협조, 반대의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평화적이며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구 바 공 산 당 중앙 위원 회 제 2 비 서
구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구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울 까스프로 루쓰
2010년 8월 29일 아 바 나

선군혁명로선은 가장 정당한 로선

로작연구토론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남아프리카와 민주공화에서 13일과 17일에 진행되었다.

토론회들은 남아프리카 진보적사상연구소, 민주교원동맹, 민주공화국민주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공동에 참가하였다.

남아프리카 진보적사상연구소 위원장 에디에 케카나는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그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신 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로작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온갖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적문제라고 하신다고 지적하셨다.

그께서는 로작에서 오늘날 조선은 선군정치로 김일성주의적

위대한 군사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이며 주체위업승리의 앞길을 열어나가고있다고 강조하셨다.

참으로 김정일각하의 로작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군대가 노는 역할과 그 지위를 독창적으로 밝힌 력사에 전무후무한 불멸의 로작이다.

세계 진보적인 인민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로 하여 오늘날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

히 서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만을 목치고있었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아래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민주공화국민주사상연구소 조 위원장 은재바 양가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제시하신 선군혁명로선이야말로 미래의 군사적위업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조선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혁명로선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역센 의지의 선언이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도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오셨다.

하여 오늘날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김정일각하이사야말로 세계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다. 그이께서 선군정도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류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선군으로 평화를 수호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치의 선군혁명로선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것은 조선혁명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연이었다.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령도필에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물리치며 사회주의승리에로 절대 군대와 인민을 혁명하게 이끌고있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수없이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과 군대, 인민이 선군의 기치아래 사회주의의 주권을 수호하고 혁명적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조선인민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인민혁명당의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하사날 하크 이누가 1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세계정치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치의 선군혁명로선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것은 조선혁명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연이었다.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령도필에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물리치며 사회주의승리에로 절대 군대와 인민을 혁명하게 이끌고있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수없이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과 군대, 인민이 선군의 기치아래 사회주의의 주권을 수호하고 혁명적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랭전식사고방식의 발로

요즘 미국이 남조선과의 그 무슨 《안보동맹》 강화를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군사적인동을 일삼고있다.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남조선의 《안보》와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무장관은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을 핵강국을 떠올리며 미국과 남조선의 《군군간 협력관계》를 떠들었다.

한편 특대형반공화국모략사건남조후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서 대규모연습을 련이어 강행하고있다. 최근에 남조선 전역에서 피뢰탄과 함께 핵시험장인 《울진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미국은 9월초에 조선서해에서 반잠수함훈련을 실시한다는것을 또다시 발표하였다. 미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주변에서 계속되는 군사연습의 목적이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방위일부》를 리행하려 한다는 명백한 대세지기를 북조선에 보내기 위한데 있다 하니, 조선서해에서 진행될 반잠수함훈련이 그누구의 《수중공격》에 대비한 미군과 남조선피뢰탄의 《공중방위능력》과 《효율성》을 높여 줄수 있을것이라는니 뉘니 하고 지껄어댔다.

미국은 남조선에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서 정세를 침에한 국력으로 몰아갈 때마다 그 무슨 《안보》와 《방어》 광고를 약국의 감조처럼 써먹고있다. 그러나 그뒤 꺾어놓으려는 저들의 침략행위를 절대로 가라앉혀주지 않는다.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핵전쟁위기를 제일 질은 곳으로 공인되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는 수많은 침략대군이 전개되어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런 곳에서 불장난을 벌리는것은 위험천만하고도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짚실로 바란다면 이런 곳에서 정세를 극단으로 끌어가는 군사적움직임을 자제하여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미국은 반대로 무력증강과 끊임없는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

최근남한 미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기동타격부대들을 조직하고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벌이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이미 여러차례의 검토를 통하여 완성된 북침작전계획을 기초하여 감행되고있다.

용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벌리는 핵시험장 《방어》와 아무런 단호도 없다는것은 뻔하다.

미호전평들은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조치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그것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힘의 대결전략에 반기지 않는다. 현대적미군기동타격부대를 동원하여 신적 타격방법으로 새로운 조선전쟁을 치르려는것이 미호전세력들의 침략적기이다. 그 무슨 《공약》이나, 《협력관계강화》니 하는 미제의 공언은 그들이 힘의 우세를 보장하고 선적공격 전략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줄뿐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정경으로 치닫고 동북아시아에서 완회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이 지역에서 로골적으로 군사적패권을 추주하는 미제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기인된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장본인으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감출수 없다.

미국이 《동맹관계》강화를 떠들며 남조선피뢰탄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일나갈 때라는것은 랭전식사고방식의 집중적 표현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전략적동맹자》로 묘사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이 나라들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에 장부로 되는 《잠재적적수》로 지목하고있다. 이로써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남조선과 일본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든든히 거머쥐고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해버려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군사동맹》강화에 대하여 력설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범죄적기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관계》강화의 간판밑에 남조선과 아합하여 벌리는 무분별한 전쟁소동은 시대착오적인 망둥이다.

적들의 무모한 전쟁소발행동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대군이 달려들어오 단애에 짓밟아버릴 만단의 전투동태를 갖추고있다.

미국은 상대를 툄바로 보고 군사전략적우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이 벗어나야 하며 무모한 군사적소동을 걸어치우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힘의 대결전략에 반기지 않는다. 현대적미군기동타격부대를 동원하여 신적 타격방법으로 새로운 조선전쟁을 치르려는것이 미호전세력들의 침략적기이다. 그 무슨 《공약》이나, 《협력관계강화》니 하는 미제의 공언은 그들이 힘의 우세를 보장하고 선적공격 전략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줄뿐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정경으로 치닫고 동북아시아에서 완회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이 지역에서 로골적으로 군사적패권을 추주하는 미제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기인된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장본인으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감출수 없다.

미국이 《동맹관계》강화를 떠들며 남조선피뢰탄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일나갈 때라는것은 랭전식사고방식의 집중적 표현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전략적동맹자》로 묘사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이 나라들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에 장부로 되는 《잠재적적수》로 지목하고있다. 이로써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남조선과 일본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든든히 거머쥐고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해버려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군사동맹》강화에 대하여 력설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범죄적기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관계》강화의 간판밑에 남조선과 아합하여 벌리는 무분별한 전쟁소동은 시대착오적인 망둥이다.

적들의 무모한 전쟁소발행동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대군이 달려들어오 단애에 짓밟아버릴 만단의 전투동태를 갖추고있다.

미국은 상대를 툄바로 보고 군사전략적우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이 벗어나야 하며 무모한 군사적소동을 걸어치우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힘의 대결전략에 반기지 않는다. 현대적미군기동타격부대를 동원하여 신적 타격방법으로 새로운 조선전쟁을 치르려는것이 미호전세력들의 침략적기이다. 그 무슨 《공약》이나, 《협력관계강화》니 하는 미제의 공언은 그들이 힘의 우세를 보장하고 선적공격 전략을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줄뿐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정경으로 치닫고 동북아시아에서 완회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이 지역에서 로골적으로 군사적패권을 추주하는 미제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기인된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장본인으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감출수 없다.

미국이 《동맹관계》강화를 떠들며 남조선피뢰탄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일나갈 때라는것은 랭전식사고방식의 집중적 표현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전략적동맹자》로 묘사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이 나라들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에 장부로 되는 《잠재적적수》로 지목하고있다. 이로써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남조선과 일본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든든히 거머쥐고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해버려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군사동맹》강화에 대하여 력설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범죄적기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관계》강화의 간판밑에 남조선과 아합하여 벌리는 무분별한 전쟁소동은 시대착오적인 망둥이다.

적들의 무모한 전쟁소발행동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대군이 달려들어오 단애에 짓밟아버릴 만단의 전투동태를 갖추고있다.

미국은 상대를 툄바로 보고 군사전략적우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이 벗어나야 하며 무모한 군사적소동을 걸어치우야 한다.

답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18일부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에프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야호야 자카리야 헤이올라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8월 25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 50돐을 성대히 경축하

발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선군정치인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군사수령장으로서 105명장사단을 창시하셨다.

김정일각하께서 새기신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온갖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적문제라고 하신다고 지적하셨다.

그께서는 로작에서 오늘날 조선은 선군정치로 김일성주의적

답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18일부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에프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야호야 자카리야 헤이올라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8월 25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을 새기신 50돐을 성대히 경축하

발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선군정치인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군사수령장으로서 105명장사단을 창시하셨다.

김정일각하께서 새기신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온갖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적문제라고 하신다고 지적하셨다.

그께서는 로작에서 오늘날 조선은 선군정치로 김일성주의적

발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선군정치인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군사수령장으로서 105명장사단을 창시하셨다.

김정일각하께서 새기신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온갖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적문제라고 하신다고 지적하셨다.

그께서는 로작에서 오늘날 조선은 선군정치로 김일성주의적

발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선군정치인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군사수령장으로서 105명장사단을 창시하셨다.

김정일각하께서 새기신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온갖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적문제라고 하신다고 지적하셨다.

그께서는 로작에서 오늘날 조선은 선군정치로 김일성주의적

발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선군정치인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군사수령장으로서 105명장사단을 창시하셨다.

김정일각하께서 새기신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온갖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적문제라고 하신다고 지적하셨다.

그께서는 로작에서 오늘날 조선은 선군정치로 김일성주의적

발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선군정치인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군사수령장으로서 105명장사단을 창시하셨다.

김정일각하께서 새기신 선군혁명로선의 첫 저술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온갖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판적문제라고 하신다고 지적하셨다.

그께서는 로작에서 오늘날 조선은 선군정치로 김일성주의적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

지원군로병 리대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물을 참관하면서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애절고 싸운 승리의 력사를 되새기며 감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조선인민은 우리의 전투활동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성심성의를 헌신하였다.

가렬한 전투과정에 나는 부상을 여러번 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할것을 커다란 긍지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친연 림방이다. 력사는 중조친선조판제가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진행

상해협조기구 공동학훈련 《샤라보브-반테로-2010》이 16일부터 28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이 참가하였다.

테러와 분열주의, 극단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2010-20

자주적인 핵리용권리를 위하여

최근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드디어 조업하였다. 첫 핵연료 장입이 성파적으로 진행되고 다음단계 핵연료장입을 위한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란은 가까운 기간 내에 핵연료장입을 전부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1 000MW 능력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생산이 훨씬 늘어나 수소를 원천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핵연료장입이 시작된 후 대통령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은 그것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압력에서 이룩된 이란의 대승리로 평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도 이 사실을 이란에 대한 압력과 제재행동에 매달려온 미국과 서방을 거꾸러뜨린 대승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부세르 원자력발전소는 평화적 핵리용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란과 그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사이의 대결에서 기본정적의 하나로 되어있다.

자주적인 핵리용권리를 위하여

최근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드디어 조업하였다. 첫 핵연료 장입이 성파적으로 진행되고 다음단계 핵연료장입을 위한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란은 가까운 기간 내에 핵연료장입을 전부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1 000MW 능력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생산이 훨씬 늘어나 수소를 원천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핵연료장입이 시작된 후 대통령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은 그것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압력에서 이룩된 이란의 대승리로 평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도 이 사실을 이란에 대한 압력과 제재행동에 매달려온 미국과 서방을 거꾸러뜨린 대승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부세르 원자력발전소는 평화적 핵리용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란과 그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사이의 대결에서 기본정적의 하나로 되어있다.

자주적인 핵리용권리를 위하여

최근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드디어 조업하였다. 첫 핵연료 장입이 성파적으로 진행되고 다음단계 핵연료장입을 위한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란은 가까운 기간 내에 핵연료장입을 전부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1 000MW 능력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생산이 훨씬 늘어나 수소를 원천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핵연료장입이 시작된 후 대통령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은 그것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압력에서 이룩된 이란의 대승리로 평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도 이 사실을 이란에 대한 압력과 제재행동에 매달려온 미국과 서방을 거꾸러뜨린 대승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부세르 원자력발전소는 평화적 핵리용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란과 그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사이의 대결에서 기본정적의 하나로 되어있다.

자주적인 핵리용권리를 위하여

최근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드디어 조업하였다. 첫 핵연료 장입이 성파적으로 진행되고 다음단계 핵연료장입을 위한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란은 가까운 기간 내에 핵연료장입을 전부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1 000MW 능력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생산이 훨씬 늘어나 수소를 원천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핵연료장입이 시작된 후 대통령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은 그것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압력에서 이룩된 이란의 대승리로 평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도 이 사실을 이란에 대한 압력과 제재행동에 매달려온 미국과 서방을 거꾸러뜨린 대승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부세르 원자력발전소는 평화적 핵리용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란과 그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사이의 대결에서 기본정적의 하나로 되어있다.

자주적인 핵리용권리를 위하여

최근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드디어 조업하였다. 첫 핵연료 장입이 성파적으로 진행되고 다음단계 핵연료장입을 위한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란은 가까운 기간 내에 핵연료장입을 전부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1 000MW 능력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생산이 훨씬 늘어나 수소를 원천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핵연료장입이 시작된 후 대통령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은 그것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압력에서 이룩된 이란의 대승리로 평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도 이 사실을 이란에 대한 압력과 제재행동에 매달려온 미국과 서방을 거꾸러뜨린 대승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부세르 원자력발전소는 평화적 핵리용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란과 그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사이의 대결에서 기본정적의 하나로 되어있다.

자주적인 핵리용권리를 위하여

최근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드디어 조업하였다. 첫 핵연료 장입이 성파적으로 진행되고 다음단계 핵연료장입을 위한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란은 가까운 기간 내에 핵연료장입을 전부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1 000MW 능력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생산이 훨씬 늘어나 수소를 원천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핵연료장입이 시작된 후 대통령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은 그것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압력에서 이룩된 이란의 대승리로 평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도 이 사실을 이란에 대한 압력과 제재행동에 매달려온 미국과 서방을 거꾸러뜨린 대승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부세르 원자력발전소는 평화적 핵리용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란과 그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사이의 대결에서 기본정적의 하나로 되어있다.

자주적인 핵리용권리를 위하여

최근 이란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드디어 조업하였다. 첫 핵연료 장입이 성파적으로 진행되고 다음단계 핵연료장입을 위한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란은 가까운 기간 내에 핵연료장입을 전부 끝내고 전력생산을 정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1 000MW 능력의 부세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력생산이 훨씬 늘어나 수소를 원천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핵연료장입이